

## “늦은 나이는 없다... 꿈을 위한 길 걸을땐 더더욱”

### 익산 폴리텍 수료한 정동은씨

“늦은 나이는 없죠. 꿈을 위한 길을 갈 때에는 더욱 그렇죠. 다만 그 길을 확실히 안내해 줄 좋은 환경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익산 폴리텍은 저의 확실한 길잡이였습니다.”

늦은 나이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더 큰 꿈을 위해 1년을 투자한 정동은(45) 씨는 늦은 나이를 핑계대지 않았다.

정동은 씨는 지난 2015년, 늦은 나이에도 자신의 발전을 위해 그만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학장 조석남) 컴퓨터응용기계과에 입학해 1년의 시간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회사를 그만두고 입학한 만큼 더 나은 취업을 위한 학습 의지가 뚜렷했기 때문이었다. 오히려 동기들보다도 더 자주 지도교수를 찾아가 더 많은 조언을 구했다.

우선 기계설계산업기사 자격증 취득에 도전해 성공했다. 입학 후 첫 자격증 취득에 성공하니 어려울 것이 없었다. 계속해서 기계가공기능장, 공압압기능사, 생산자동화기능사, 조립기공산업기사, 조립기공기능사 자격증을 재학 중 취득했다.

정씨는 “강의를 들다보니 근무하면서 알지 못했던 불량품의 발생 원인을 알 것만 같았다. 점점 배움에 흥미와 열정을 가질 수 있었다”고 폴리텍대학 재학 중 열심히 공부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재학 중 6개의 자격증을 취득한 정씨는 폴리텍대학 수료 후 근무하던 회사에 더 나은 대우를 받고 재입사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연구소 설립을 위한 실력과 의지를 갖췄기 때문이다.

재입사 후 회사의 준비를 가장 잘 다루는 전문가가 됐을 뿐만 아니라 연구소를 설립해 연구소장 직위에 올랐다. 또한 벤처기업 인증에 성공, 회사가



정동은 씨는 지난 2015년, 늦은 나이에도 자신의 발전을 위해 그만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컴퓨터응용기계과에 입학해 1년의 시간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중소기업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정씨는 이후에도 공부를 놓지 않았다. 지도교수님의 권유로 각종 자격증 학습과 함께 기계공학사 취득을 위해 학점은행제를 수강하고 있다.

시간이 날 때마다 학교에 찾아갔고 지도교수님의 도움을 받아 더 공부할 수 있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졸업 후에도 일반기계기사, 금형제작기능장 자격을 취득했다.

또한, 폴리텍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계장치와 제품을 개발해 9건의 특허권을 신청했다. 이 중 2건은 특허로 등록 됐으며 7건은 현재 특허출원 중이다.

2015년 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와 인연을 맺은 후

지금까지도 연을 이어가고 있는 정씨는 “폴리텍에 입학한 2015년은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된 해였다”면서 “항상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컴퓨터응용기계과 학과장님과 지도교수님, 그리고 폴리텍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정동은씨가 수료한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는 전문기술인을 양성하는 국책특수대학으로서 산업현장과 교육생들의 수요에 맞춘 국비1년 전문직업훈련과정과 2년제 대학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양질의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어 수험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익산=장현 기자

### 군산대 봉사단, 독거노인 대상 사랑의 집 고쳐주기

군산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 봉사단(이하 군경총봉사단)은 2016년 리브하우스 1호 사업에 이어 올해도 사할 독거노인 대상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전개했다.

대상은 군산시사회복지협의회 추천으로 군산시 회원면에 사는 정모 할머니 집이다. 임식 부엌과 싱크대, 화장실과 욕실을 기존의 거실을 활용해 일체형으로 만들어 줬다. 겨울을 대비해 샷시도 해주었다.

장독대와 마당을 정돈하고 오래된 장롱 교체, 도배장판도 했다. 건설업체에게 맡기면 1,500만원 상당의 예산이 소요되는 내용이다.

그러나 군경총봉사단의 재능기부와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으로 400여만 원으로 이 모든 것을 끝냈다.

공사가 마무리되고 하룻밤을 주무신 정모 할머니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셨다. 동네 어른들이 집 구경하러 놀러 오신다. 뜨거운 여름날에 따뜻한 물로 뉘뉘벅벅된 봉사단원의 입기에도 환한 행복웃음 꽃이 피었다.

/군산=장현 기자



### 완산구, 식중독 사고 예방 위한 식품 일제 수거·검사 실시

전주시 완산구는 하절기 식중독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내 여름철 다소비 식품에 대한 일제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수거·검사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10일부터 14일까지 5일 동안 여름철 식중독을 유발하는 대형마트, 백화점, 음식점, 편의점 등에서 진열·판매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는 감밥, 샐러드, 초밥을 수거하고 음식점에서는 냉면육수와 소바 육수, 감밥을 편의점에서는 유통감밥과 도시락, 식용얼음 등을 수거하여 검사할 계획이다.

/안재용 기자

### 완산서 평화파출소,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 간담회

완산경찰서 평화파출소는 5일 회의실에서 생활안전협의회 회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한 우리동네를 만들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휴가철 주택가, 원룸, 아파트 등 침입절도 예방을 위한 빈집 사전신고제, 소주병 등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캠페인 및 피해 사례, 2017 개인소지 총기 일제점검 등 경찰활동을 적극 홍보하며 협조를 당부했다.

안준원 평화파출소장은 “생활안전협의회 등 협력단체와 간담회와 합동 순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전한 우리동네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기자

### 완산서 효자지구대, 강·절도예방 금은방 특별방범 진단

완산경찰서 효자지구대는 5일 관내 금은방형 현대업소를 상대로 방범취약요소 점검, 긴급 112 신고요령 홍보 등 특별 방범진단을 실시했다.

효자동 관내 금은방 14개소는 대부분 영세하고 대로변이나 주택가 후미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강·절도 피해예방을 위해 담당구역 책임경찰관을 지정해 수시 방범용 CCTV, 한담을 시스템 등 방범상 이상유무를 점검했다. 또한 미비한점은 업주의 협의를 통해 개선하기로 했다.

/이상민 기자



### 수시탐포럼, 나운복지관 무료급식 봉사활동 전개

수시탐포럼(의장 김동수)은 5일 포럼 회원 20여 명과 함께 군산 나운복지관 무료급식소에서 급식봉사 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급식소를 찾은 위원들은 식사 준비와 함께 배식 및 설거지 등 바쁜 시간을 보냈으며 미리 준비한 음료를 나누어 드리는 등 작은 정성을 내렸다.

김동수 의장은 “우리 사회의 어려운 소외계층을 찾아 사랑을 전달하고 함께 하는 기쁨을 나누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장현 기자

### 서전주로타리클럽 회장·임원 이사 이취임식

국제로타리 3670지구 서전주로타리클럽 제47대(회장 차은수),48대(회장 강석준) 회장 및 임원, 이사 이취임식이 지난 4일 아름다운컨벤션웨딩에서 김홍균 총재, 전대영 전총재, 정영철 전주4지역대표, 통영비바 자매클럽, 내외 귀빈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 개최되었다.

48대 회장으로 취임한 강석준 회장은 “로타리, 변화를 만들자”라는 국제로타리 테마를 실천하며 재전에서 세 번째로 창립되어 곧 50주년을 앞두고 있는 클럽으로서 역사와 전통에 시대의 변화를 덧붙여 3670지구를 선도하는 리더클럽으로써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2017-18 한회기 혼신의 힘을 다해 클럽을 이끌어 가겠다고 취임인사를 밝혔다.

한편 이날 7명의 회원이 초아의 봉사대열에 새로이 동참하였으며, 한국전문문화고 인터랙트 회원 5명에게 장학금 150만원을 전달하고 성요셉동산 양로원과 지역사회봉사단에도 2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하였다.

서전주로타리클럽은 1970년에 창립하여 장학금사업, 사랑의 집짓기 사업, 지구보조금사업, 명절맞이 불우이웃돕기, 자정면봉사, 어르신 섬김잔치, 사랑의 김장담그기, 연탄봉사, 소년·소녀 가정돕기, 지역사회봉사단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오고 있다.

/김민근 기자



<b>전주매일</b>	www.jimaeil.com	2017년 11월 25일 등록(일간)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우)6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숙훈)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전무 겸 편집국장 김관춘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 010-9845-4113	중앙지사 010-9388-6874	남원지사 632-3386	고창지사 563-6888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7-8855	임실지사 010-9642-2725
서신지사 272-9417	순천지사 256-2404	완주지사 246-8855	진안지사 433-3084
호지사 010-9845-9335	광복지사 253-6844	남원지사 632-0955	정읍지사 538-3087
	군산지사 010-6789-038	순창지사 633-0444	장수지사 010-3882-9157
	익산지사 639-9323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3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 임실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환 신부(Didier l'Sersl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달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